

문화

■ 전남도립국악단 '국악 체험극' 리허설 현장

“국악은 어른들만 즐긴다구요? 에~이! 귀신소동-똥떡 이야기인걸요”



22일 화순 전남도립국악단 연습실에서 단원들이 '무럭이네 가족 귀신 소동-똥떡 이야기' 연습을 하고 있다.

'국악이 어렵고 따분하다고?' '국악은 나이 든 어른들이나 즐기는 거라고?' 전남도립국악단(지휘자 겸 예술감독 김만석)이 오는 25일 오후 5시 목포시민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고정관념'을 확 깨는 국악뮤지컬을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국악체험극 '무럭이네 가족 귀신 소동-똥떡 이야기' 연습에 한창이다. 22일 찾은 화순을 전남도립국악단 연습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밤 9시까지 연습을 진행하는 등 땀은 고되지만 연습을 하는 배우들도 연방 폭소를 터뜨릴 정도로 작품은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시끌벅적을 떠나요" 단원들의 외침에 이어 흥겨운 국악 반주가 펼쳐졌다. 이어 출연진들이 가차없이 하며 흥겨운 노래를 들려줬다. 흑부리 영감을 주인공 공으로 한 옛날이야기가 펼쳐지고, 화장실 가기 싫어하는 주인공을 흔내주러 '귀신'들이 등장한다. 국립창극단 등 서울 지역 국악단체들은 어린이용 창작극이나, 가족용 국악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 지역 공립국악 예술단체들은 정통 창작 공연에 주력, 가족용 국악 뮤지컬을 직접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작품은 김만석 지휘자가 직접 대본을 썼으며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했던 주호중씨가 연출을 맡았다. 또 김경호(전 대전시립무

25일 목포서 가족용 국악뮤지컬 공연 다양한 우리 국악기 설명·연주 코너도

용단 상임 안무가)씨가 한국적인 춤사위에 얽매이지 않고 동심과 해학이 묻어나는 안무를 썼다. 이번 작품은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집에 놀러간 무럭이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며 똥떡을 만들어 뒷간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눠먹던 풍습을 소재로 했다. 공연 시간이 1시간 20분인 이번 작품은 쉽게 국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호기심을 돋운다. 무럭이 할아버지가 '흑부리 영감'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무용부 단원들이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역할을 맡아 마음 연기를 하고, 장

양 등이 무럭이 합창단으로 참여한다. 무대 위에서 반주를 할 35명의 단원들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의상을 입고 연주한다. 공연 막바지에는 다양한 우리 국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를 들 수 있는 특별한 코너도 마련했다. 무럭이 아빠가 해금, 가야금, 대금 등 각각의 악기를 소개하고 어떤 소리를 내는 지 들려준 후 연주도 감상한다. 국립국악단은 앞으로 작품을 업그레이드해 전남도립국악단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만석 상임지휘자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릴 적 추억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일반 3천원, 대학생 2천원, 초·중·고생 1천원. 문의 061-286-5421,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탁포럼'



광주전남불교협회, 24일 여수서 '한국문화의 세계화' 의도 한다. 광주전남불교협회에서는 우리 시대와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목탁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지난 4월14일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불교문화 담아야'라는 주제로 제1회 목탁포럼을 개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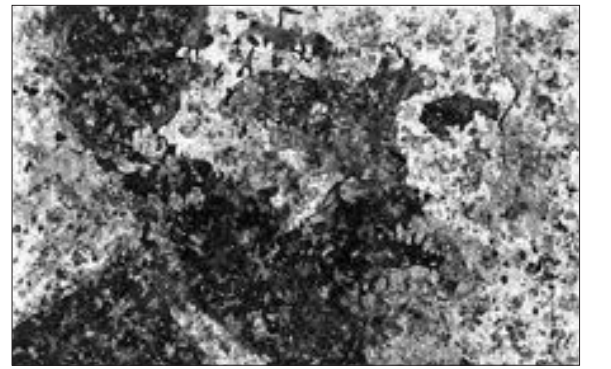
광주전남불교협회(상임대표 송광사 주지 영호 스님)는 24일 오후 4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제2회 목탁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유인학 한양대 명예교수와 허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는 여수 석전사 진옥 스님 등이 '여수세계박람회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문민정사 주지 함창

Advertisement for 'Mudeungsan Munbinjeongsa' (무등산 문빈정사)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temple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화폭을 물들인 '농성동 블루스'전

25일~9월13일 상록전시관

유형가 가락처럼 구상된 색감이 화폭을 물들인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관장 장경화)은 25일~9월13일 '농성동 블루스'전을 갖는다. 지난 1970년대 고단한 서민의 삶과 함께했던 대중가요의 한 장르인 블루스처럼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일근, 씨킴, 정예금, 주대희, 최석운, 최재영, 허진, 황정후씨가 참여한다. 전남 아라리요 갤러리 회장인 씨킴(김창일·58)은 고흐의 초상화를 정밀하게 그린 뒤 토마토를 던져 완성한 '빈센트 반 고흐'를 전시한다. 씨킴은 최근 미술잡지 아트뉴스가 뽑은 세계 200대 미술품 수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유명 컬렉터이기도 하다. 가방, 구두, 악기 등을 소재로 현대 산업을 비판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일근씨는 이번 전시에서 '줄을 서시오'를 출품했다. 서투 가방을 나열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꼬집는다. 또 최재영씨는 인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위선에 대해



씨킴 작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한 '인형 시리즈'를 전시하고, 주대희씨는 잊혀져 가던 유년시절 기억을 회상하는 '나 빼줘'를 내놨다. 장경화 관장은 "블루스처럼 탐구가 느리면서 대중의 마음을 저미게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면서 "이번 전시는 관객들의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심적 안정감과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 싸리비 등 목제유물 발굴

국내 최대 복합농경유적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 싸리비, 파리, 나무용기, 제기 등 목제유물과 다양한 형태의 삼국시대(3~4세기) 집터 10기가 확인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22일 "올해 미조사 구간 발굴조사를 통해 이같은 유물을 발견했고, 내부에 칠(漆)이 붙어 있는 통일신라시대 토기도 출토됐다"고 밝혔다. 싸리비는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00~기원 전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 위해 이용한 파리는 서울 풍납토성 외곽의 한성백제시대 우물터(5세기 무렵)에서 발견된 것보다 사용 연대가 500년 정도 빠르다. 또 평면 형태가 다양한 삼국시대 집터 10기를 확인했으며, 내부에 칠이 부착된 통일신라시대 인화문(도장무늬) 토기도 수습했다. 조현중 관장은 "신창동 일대가 초기철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칠 생산 기지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들이 토기 파편 등 출토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송광사 불화 등 문화재 인터넷서 본다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협약 체결 5천500여 점에 달하는 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해 일반 이용자 및 연구자들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광사 측은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고문헌을 대부분 박물관 수장고에 쌓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문헌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들은 불교학은 물론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약 체결 배경을 밝혔다. 성보박물관에는 현재 박물관 측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문헌과 구산(九山) 및 인암 큰 스님이 기증한 전적, 그리고 수도암(修道庵)에서 보관해 온 불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보물급 자료들도 다수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Gyeongju' (작은만남 큰경주) featuring a grid of 24 business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